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빚 부담 줄여준다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 요건 내달부터 완화 연매출 6천만원 이하 댄 전기료 20만원 지원도 노래방·동물병원 등 은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한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중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은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고금리대환대출요건 완화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

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준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5천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신용도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31일에서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전으로 변경된다. 대출 유형도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도 3천만원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신용도는 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하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올해 지원 금액은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2천억원 추가된다.

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구매자금 용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전기료혜택 대상 50만명 더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업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여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여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현재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개 지원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확대 시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기존보다 가점을 더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도 비축물자를 팔 수 있도록 해 비축 농산물은 시장과 슈퍼까지, 수산물도 슈퍼까지 각각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 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는 '출산'이 추가된다.

은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은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은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사용처는 지난해 182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한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내년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데생매주 전문점과 스크린 야구장 등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농어촌민박에 바비큐장·수영장 가능...삼시세끼도 제공

농식품부, 민박 제도 개선...관리·감독은 강화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교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성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

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농어촌민박 현황 조사를 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에서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화물 전기차 보조금 등 소비 촉진 '3중 패키지' 지원

정부가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중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완성차업체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

한다.

지금은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 감면 한도인데,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구체적인 감면 한도를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고밀 재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8천가구, 25년 이상·30년 미만은 9만가구가량이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